

중보기도 Intercession Prayer

1. 제 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하여
2. 2020년도 세워진 일꾼들과 재정을 위하여
3. 환우와 시니어 공동체를 위하여
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하여
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6. 사무처리회를 위하여
7. 국내/해외 선교지와 사역자의 안전을 위하여
8.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위하여
9. 미국의 정치/경제/문화를 위하여
10. 지역교회 살리기(포도나무교회-김명신 목사) 위하여
11. 이번주 지역교회 중보기도: 타코마 뱀엘교회 - 박승순 목사

국내/해외 선교 Home/Overseas Mission

국내 선교 지역

- ▶ 동아시아 50개 교회/Peter An
- ▶ 방송 선교지원
- ▶ 노숙자 등지 선교회
- ▶ 아프리카 우물파기
- ▶ 이완구 장학사업
- ▶ 샤론센터
- ▶ 한국선원 선교회

해외 선교 지역

- ▶ 독일/시리아 난민선교(JDL)
- ▶ 쿠바(정경석)
- ▶ 니카라과(해밀턴)
- ▶ 도미니카 아이티(문애희/Vilcaive)
- ▶ 우크라이나(박철규/김경희)
- ▶ 잠비아(Emile)
- ▶ 말레이시아(고인섭)
- ▶ 터키(이성숙/자슈아)
- ▶ 슬로바키아(서일원/조정선)
- ▶ 헝가리/집시선교(박완주)

기독교 기관 선교

- ▶ 미주 남침례회 SBC
- ▶ 북미주 한인침례총회 CKSBCA
- ▶ 서북미 한인침례교 협의회
- ▶ 한인국내선교부
- ▶ 한인해외선교부
- ▶ 남침례교 6대 신학교
-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 ▶ 밀알선교단

제일 어린이 동산(Day Care)

1328 S. 84th ST. Tacoma
253) 535-9435 Director 박정희

아름다운 기도원

28814 Mountain Hwy E. Graham
253) 847-2250 Director 안광일 목사

SINCE 1975

2020년 7월 12일

섬김이 문화가 되는 교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진 세대를 연결하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령공동체이다.

주일예배

장년부 제1부 한어예배 7:40AM / 본당
장년부 제2부 영어예배 9:20AM / 본당
장년부 제3부 한어(통역)예배 11:00AM / 본당
사랑부 예배 (장애인)..... 11:00AM / 베들레헴

영아부 예배 9:20, 11:00AM / O-3
유치부 예배 9:20, 11:00AM / 나사렛
유년부 예배 9:30AM / 베들레헴

영어청년/Youth 예배 11:00AM / 안디옥
한어청년 1:30PM / N-201



수요일예배

장년부 한어예배 7:00PM / 본당
장년부 영어예배 7:00PM / 안디옥
영아부, 유치부 어와나 7:00PM / 베들레헴
유년부 어와나 7:00PM / 나사렛

금요일모임

Youth 7:00PM / 안디옥
영어청년 7:30PM / 유스룸
한글학교 6:00PM / 각교실

새벽예배

한어부 월-토 / 6:00AM / 본당
영어부 월-토 / 6:00AM / N-202

www.tfbc.org

CONTACT

Phone: 253.535.5803 Fax: 253.535.2240
Address: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Email: tfbc002@gmail.com

tfbc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acoma First Baptist Church

주일에배

Worship Service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0

인도: 전우일 목사

3부 예배 오전 11:00/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인도: 정주영 목사

- * 경 배 와 찬 양
- 1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9장 “거룩 거룩 거룩”
3부: “일어나라 주의 백성”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는 믿네”

기 도

1부: 김정숙 집사
3부: 이호영 집사

봉헌/성가대찬양

1,3부: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공 동 체 소 식

* 성 경 본 문

다니엘 3:24-30

제 목

“반전”

말 씀 선 포

남궁곤 목사

* 응 답 찬 송

1부: 406장 “내 맘이 낙심되며”
3부: “나는 믿네”

* 축 도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All Rise)

이달의 말씀 Word of the month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 (잠언 19:17)

■ ■ ■ 지난 주일 설교 Last Sunday Sermon

□ 제목: “눈을 감아도 보는 교회”

□ 본문: 시편 132:1-5

눈을 감았는데 무엇이 보인다는 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있어도 마치 선명하게 보이는 것 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인생에서의 마음에 새겨지게 된 사람들의 가족들의 얼굴들, 그리고 행복했던 어떤 순간들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어도 보여지고, 오히려 눈을 뜨고 있어도 보여지게 되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로서, 앞으로 언제나 눈을 감아도 모두에게 보여지는 그런 [교회/사람들]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을 감고 함께 보자는 것은 결국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이, 기쁨으로 살아내야 할 교회를 함께 기도하며 꿈꾸며 세워 나아가자는 말씀입니다.

1. 눈을 감아도 보이는 교회: “다윗의 겸손함이 있는 교회가 되자”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건축을 사모하였던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왕으로서, 자신의 능력으로 성전을 짓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교만하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 뜻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즉, ‘다윗의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 완공되어진 아름다운 성전이 여기 있으니, 성전으로 순례 길을 갈 때 마다 ‘그 마음’을 본받아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자는 의미로 시편 132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의 겸손함’을 본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의 시작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지를 고민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겸손함으로 일구어 내야 할 열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니 오히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고심하며 노력하는, ‘겸손한 마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2. 눈을 감아도 보이는 교회: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들을 바라보자”

우리의 인생 길은 뜻 하지 않은 시기에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고단한 ‘순례의 길’ 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깝처럼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돌 배개 하나만 베고 외로움속에서 잠을 자야 하는 신세가 될 때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의 순례 길 가운데, 우리를 타코마제일침례교회로 묶으셨고, 광야에서도 함께 걸어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길에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이 뒤 쳐지지 않도록, 그리고 내 가족들과 나의 마을식구, 우리 교회가 함께 힘을 내어 역경을 헤쳐 나아가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즉, ‘눈을 감아도 보여지는 교회’는, 광야에서도 서로를 사랑하며 전심으로 기도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나중에 이 기간이[말씀이 있는 곳], 인생 중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한 광야가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보여져야 할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다 하여 전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지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헛된 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길ियो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다윗과 같은 겸손한 사람들’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도 말씀을 먹고 함께 자라가며,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까지, 복된 길을 걸어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신기하고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상 나눔 질문)

1. 시편 저자가 노래하는 ‘다윗의 겸손’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여져야 할까요?
2. 인생의 순례자로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3. 앞으로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대상자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한국 이단의 세계화

한국 이단들이 한류 바람을 타고 세계화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막강한 경제력과 조직력을 앞세워 정치인들에게 접근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도록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회봉사와 지역 개발을 명분으로 미혹의 덫을 놓는다. 한국 교회가 각개 전투 하듯 선교지로 향하는 동안, 이단들은 조직적으로 선교지에 침투하고 있다. 선교사들은 복음 전도 사역의 어려움과 이단 문제로 이종고를 호소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은 주로 한인 이민자들에게 접근한다. 특히 신천지는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뉴욕, 캘리포니아, 토론토, 밴쿠버, 시드니 등에 거점을 마련하고 이민 교회에 침투해 분열과 불신을 조장한다. 현지인들에게 공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펼치는 하나님의 교회도 주목해야 한다. 남미와 중동에서는, 최근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가 정치와 언론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아프리카는 전통적으로 통일교가 강세를 보이며, 유럽도 베를린이나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다수의 이단이 침투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은 주요 이단들의 거점이자 경유지가 된다. 공산국가도 예외는 아니다.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지에는 다른 어떤 곳보다 한국 이단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베트남 교회는 최근 하나님의교회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호치민과 하노이에서는 안상홍과 장길자를 각각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베트남 청년들이 포교 활동을 펼친다. 이들의 활동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기독교 선교사들을 감사하고 탄압한다. 중국에서도 신천지와 하나님의교회 등 이단들의 활동이 선교사들에 대한 통제와 추방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인터콥 관련 의혹을 받는 중국인들이 파키스탄에서 탈레반에게 살해되며, 선교에 대한 통제가 극도로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한류 바람을 타고 세계화하는 이단들은 복음 전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단에 대한 대처가 없는 세계 선교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단 예방과 대처는 선교의 필수 요건이 되었다. 특히 남, 북, 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틈타 이미 이단들은 북한과 탈북자 포교에 집중하려고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어느 때보다 이단 대처를 위한 한국 교회의 중, 장기적인 선교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탁지일 부산장신대학교 교회사 교수, 월간 현대종교 이사장 겸 편집장
생명의 삶 2018년 11월호에서 발췌

수요성령예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

Wednesday Prayer and Worship



수요일 저녁 7:00/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찬양과기도	찬 양 팀
기 도	임숙깁빈 집사
제 목	“의인은...”
성 경 본 문	로마서 1:17
말 씀 선 포	안광일 목사

■ ■ ■ 봉사위원 Volunteer

	이 번 주		다 음 주	
기 도 Prayer	1부	김정숙 집사	1부	권태운 안수집사
	3부	이호영 집사	3부	박종길 안수집사
	수요	임숙깁빈 집사	수요	혜숙잭슨 집사
주차장	가능한 안전을 위해서 본당 앞쪽으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 Usher	안내: 교회 로비에서 온도체크를 받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유지)			
	헌금(당분간 예배 중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로비에 비치된 헌금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오찬 봉사	7/12	주일 오찬은 없습니다		
	7/19	주일 오찬은 없습니다		
	7/26	주일 오찬은 없습니다		

■ ■ ■ 사역스케줄 Ministry Calendar

2020년 7월	2020년 8월
----------	----------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저희 교회를 방문/등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신 성도들은 하나님의 VIP 6주 과정을 필히 마쳐야 하며, 과정을 마친 성도는 의무적으로 예수마를 공동체(소그룹 모임)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SERVING CHURCH

섬김이 · 문화가 되는 교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TFBC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정부에서 6월 18일에 실내예배에 대하여 200명 까지 모임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수정함에 따라, 6/21부터 우리교회도 20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계속 따라주셔야 합니다. 주정부 지침에 따라 교회 예배에 참여하거나, 교회를 방문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일예배 안내:** 1부 예배(7:40AM), 2부 예배(9:20AM), 3부 예배(10:50AM)
- * **수요예배 안내:** 한어부(7PM, 본당), 영어부(7PM, 안디옥)
- * **유스/영어청년부 주일예배:** 11AM(안디옥)
- * **주일 2부/3부/수요성령예배는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계속 제공합니다.** 각 가정에서 동시간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새벽예배 안내 :**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당분간 새벽예배는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 * **유년부, 유치부, 영아부, 사랑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1. **2020년 우리교회 표어는 "섬김이 문화가 되는 교회"**입니다.
을 한해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수요성령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7/22(수)부터 베드로전후서 강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3. **학생부와 영어청년부의 여름 수련회**는 COVID-19으로 인한 캠프장 사정으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4. **생명의 삶 8월호 구입 안내:** 매일 새벽 설교나 개인 경건의 생활(QT)를 위하여 생명의 삶(8월호)을 구매 하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 \$5/권당 (한영)
5. **헌금 안내:** 아래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온라인 헌금 :** 우리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크레딧카드와 데빗카드로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시 수수료가 있습니다. (헌금액 x 2.69% + \$0.30)
 - ② **우편 헌금:** 우편을 이용하여 교회로 보내주세요. **되도록 체크(Check)로 헌금**해 주시고, 이름과 항목을 헌금봉투에 반드시 기록해 주세요.
 - ③ **현장 예배 참석하여 헌금:** 본당에 입장하기 전, 로비에 있는 헌금함에 직접 헌금해 주세요. 예배 시간 중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6. **C-Drive:**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이웃을 돕는 사역을 진행중입니다.
 - ① 기부물품 후원: 화장지, 생수, 음식 캔, 손세정제, 마스크, 라면, 쌀 등
 - ② 항목 현금: 성도와 이웃, 그리고 미주 한인침례회와 목회자를 위하여 항목 현금
 - ③ C-Drive 사역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담당 사역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역(Administration Ministry) ◆

- ◇ **교회의 안전**을 위하여 당분간 주중에는 **교회 메인 게이트(M번가)를 닫아 놓습니다.**
데이케어 쪽(84번가) 게이트를 이용해 주세요.
- ◇ **TFBC 예배 캠페인:** 집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다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1) 온라인 예배 드릴 장소를 미리 정하여 정돈하기
 - 2) 예배 10분 전부터 함께 앉아 기도로 준비하기
 - 3) 평소 주일과 같은 복장으로 예배 참여하기
 - 4) 핸드폰은 진동(무음) 모드로 설정하기
- ◇ **새벽예배 설교 (오늘의 말씀)**
말씀묵상을 돕기 위하여, 생명의 삶 본문으로 새벽예배 한어/영어 설교를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루를 복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 **새벽예배 본문**

날짜	본문	설교자	날짜	본문	설교자
7/13(월)	시편 146:1-10	정주영 목사	7/14(화)	시편 147:1-11	정주영 목사
7/15(수)	시편 147:12-20	전우일 목사	7/16(목)	시편 148:1-14	전우일 목사
7/17(금)	시편 149:1-9	남궁곤 목사	7/18(토)	시편 150:1-6	남궁곤 목사

◆ 교우동정(Compassion) ◆

- ◇ **중보:** George Guy, Ken Adkins, Rick Dollar, Eric Mose, Conard Goering, Tom Bradley, 안순행, 양례집스, 김현숙, 문선프라임, 성경 엠브리, 김정분, 박화숙

■■■ 드려진 예물 Last week Offering

주일 오찬	금 주 봉속오글(어머니 1주기) 다음주 문창선(생일)

※ **2020년 전교인 천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
한 그루 나무 심기란, 교회 주차장 및 배수관,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작정헌금이며, **1,200불로 나무 한그루를 심는다는** 비유로 **작정예물을 드리는 캠페인**입니다.
(작정헌금시 **한그루 나무심기 봉투(녹색)**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1,000그루/\$1,200,000 (한 그루당 \$1,200)

현 작정현황: 1,003그루/\$1,203,600
현 헌금액: \$1,202,771